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2> 청출어람(靑出於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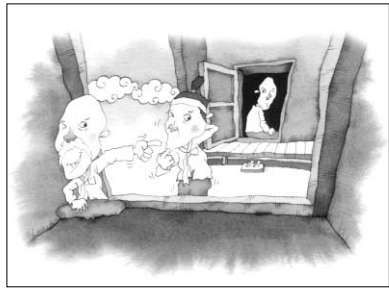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다.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수직적인 사이인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므로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서로 커간다고나 할까. 스승과 제자는 때로는 긴장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나의 경우도 짧은 학인들과 선어록을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은 늘 질문이 들어와 당황하곤 했다. 그 때 모르는 건 같이 모르고 아는 건 같이 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마조 선사의 '너무 잘난 제자' 서당지장(735~814)과 백장회(749~814)는 스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지냈을까?

제자들의 공부 수준 따져보려던 마조선사 한마디 대답도 못 듣고 "藏頭白 海頭黑"



에게 와서 전하오.

그 남자는 시키는 대로 지장에게 갔다. 건너편 지장은 방장실에 들어갔던 남자가 자기 방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마조선사께서 '조사서래의'를 지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단백에 이 노장이 나를 떠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질문을 던질 일이지 남에게 왜 시키누. 괜히 배알이 틀어졌다. 아무리 스승이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지. 내가 속마음을 보여 줄줄 알고. 그래서 핑계를 댔다.

"나는 오늘 두통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저쪽에 있는 백장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면서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흉내를 냈다. 백장이 가만히 보니 백장회(749~814)가 스승의 방에서 나와 지장의 방을 거쳐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닌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제자들의 공부 수준 따져보려던 마조선사 한마디 대답도 못 듣고 "藏頭白 海頭黑"

다. 두 제자 역시 스승이 마뜩찮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가 '마조백비(馬祖百非)' 공안이다.

어떤 남자가 마조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사구(四句)와 백비(百非)를 떠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공장 보여 주세오." 이는 언어를 빌리지 않고 진리의 당체를 바로 보여달라는 정형화된 선문답이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똥막대기" "똥 앞에 잤나무"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대답을 해주려다가 말고 그 순간 마조는 "번쩍" 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이들이 '남들의 칭찬만큼' 공부를 하긴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심기가 불편하니 지장에게 가서 물어라." 원문에는 이 말 밖에 없지만 내심으로는 이렇게 더 주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녀석이 한 대답을 그대로 나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전말을 물었다. 여쭙아봐라. 내 살림살이까지 확인해보려는 것 이런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놓을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나는 모른다." 영문도 모르고 대답도 듣지 못하고서 경내를 '다리만 아프게' 한 바퀴 똥 톨 그 남자가 마조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 나도 남기지 않고 보고했다. 마조는 '이것들을 그냥' 하는 표정을 짓고는 총명했다.

"장두흑(藏頭黑)이요, 해두흑(海頭黑)이 로다(지장 머리는 희고 백장 머리는 검다)."

흥건적이라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산적 도둑놈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흰 띠나 검은 띠를 들었던 산적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 말은 "내 법을 훔쳐간 이놈들이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스승한테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어. 이 도둑놈들이, 밥값 내놔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너무 의리선(義理禪)적으로 해야만 것인가.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로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비난한다. "당신 친정 사람들 보면 한결 같이 저질이야!" 갈라서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민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응대하는 아내의 말에 따라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최근 들어 일상의 용어를 통한 '쉬운 수행'이 뜨고 있다. 일상용어로 자기 삶을 닦아가는 수행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일상용어에도 수행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표현은 '쉽게', 내용은 '깊게', 일상의 삶을 경영하는 동사법, 보현행원, 감사수행의 세계로 들어가 봤다.

반응하는 순간 깨어있기

■동사법, '~구나, ~겠지, ~감사' 실천 동사법(同事法)수행은 일상의 어법으로 수행법을 말한다. '~구나, ~겠지, ~감사'의 실천이 바로 그것. 가령 친정집을 비난하는 남편의 말에, 동사법수행은 '남편이 비난하는구나', '사정이 있어 불같은 노여움을 내겠지' "더 심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하며 바깥 경계를 수용하는 힘을 강조한다. 즉 반응에 접촉하는 순간, 깨어있으라는 의미다. 또 일상 용어에 녹아든 수행의 진면목을 깨어나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사법 수행자 김종근(46·사천고 교사)씨는 "구나, 겐지, 감사'의 실천은 일상 속에서 수시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긍정의 힘이 길러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좋은 점을 우선 보게 됐다"고 말한다.

1980년부터 용타 스님이 주창한 동사법수행의 특징은 '좋은 느낌, 즉 행복을 얻기 위해 제시한 5대 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正體) '큰 희망 갖기(大願) '마음 잘 다루기(修心) '마음 잘 나누기(和合) '잘 역할하기(作善)'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활발(活佛)'임을 현실생활에서 구현해나간다고 말한다. www.dongsasub.org (063)227-1000

너그러이 허물 덮어주기

■보현행원,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4년 '널리 바치고 섬기라'는 <보현행원품> 연구에 감동을 받고 보현행원 수행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종민 거사(서울 흥인소 아과 원장)는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의 실천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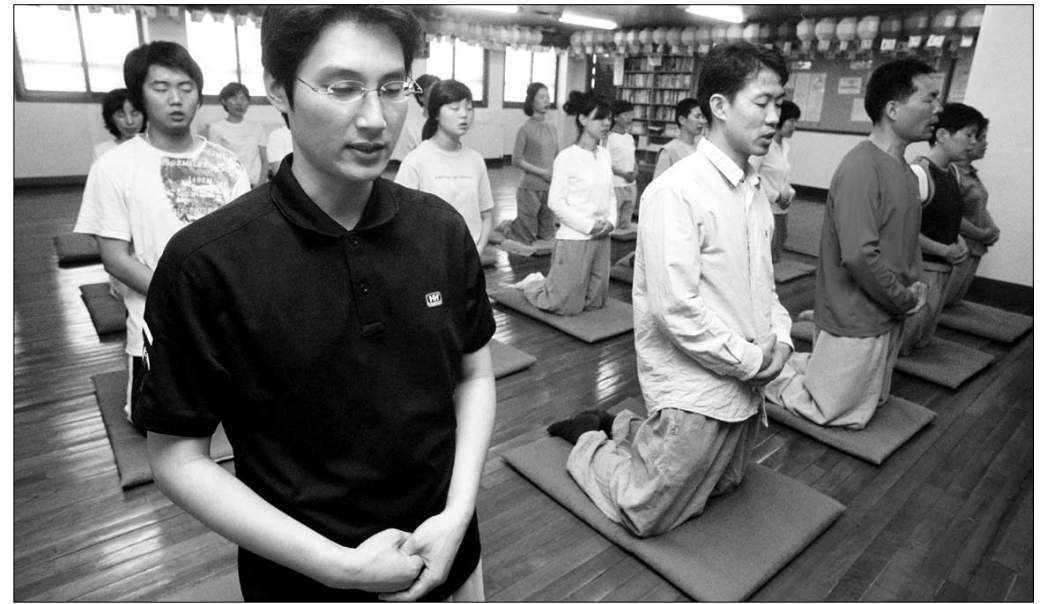
여기서 '고맙다'는 세상이 일체 중생의 공덕으로 가

서울 육조사, '선가귀감' 강설

서울 육조사는 선원 돈암동 이전을 기념해 2월 16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선가귀감> 강설 법회를 병행한다.

5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이번 강설에서는 주지 현웅 스님이 강주로 나서며,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출·재가 제한이 없고, 참가비는 15만원. (02)953-5291

소박한 일상언어로 수행해 보실래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기까지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 때문에 일상의 말에 녹아든 수행의 가치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은 법왕정사 군자법당에서 감사수행을 하고 있는 재가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득 차 있음을 감사하고, '잘했다'는 어느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인정해주며 너그러이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가짐이다. 또 '미안하다'는 매사가 자신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참회하는 말이다.

이 거사는 "이 세 마디는 고맙지 못한 일까지 '고맙다' 소리를, 잘하지 못한 일조차 '잘했다' 소리를 나오게 하며, 미안하지 않은 일조차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잘못을 자신의 허물로 안고 가게 한다"며 "보현행원은 이렇듯 쉽고 소박한 마음과 일상의 말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일상용어를 통한 보현행원 수행은 '살과 수행이 들어 아니다'란 면에서 출발한다. 일상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현실은 사라지고 수행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행은 쉬워야 하고 그 말은 일상용어가 돼야,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거사는 강조한다. cafe.daum.net/bohhyun (02)2659-1035

지금 이 순간에 감사

■감사수행,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매마른 심신을 일상의 말로 기쁘게 하는 생활응용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관법명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 과정의 '제17차 관법명상 수련회'를 경기도 안성도 피인사 보현당에서 병행한다.

이 대학 명상학 황용식 교수가 지도하는 이번 관법명상 수련회는 관법명상 소개, 단체 명상, 사랑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인원 30명, 참가비 15만원. (02)890-2834

수행. 열불선 수행원리를 응용한 '감사(感謝)수행'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3년 전 감사수행을 개발한 정경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 속에 '고맙습니다'는 긍정의 말이 생겨,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수행자 정정숙(34·서울 서초동)씨는 "5시간 넘게 행선(行禪), 좌선(坐禪), 정을 이어가면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반복해서 외면 저절로 고마운 일이 생겨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며 "특히 이 말을 지극히 영속하면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영속만 남게 되는 체험도 한다"고 말한다.

이런 감사수행의 원리는 '열불하는 이 높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를 화두 삼아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워 결국,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깨닫는 열불선 수행법에 있다. 즉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란 일상의 언어가 감사수행의 화두가 된 셈이다. (02)456-4994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기는 언제나 무료로 보냅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랑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pgun@avatar21.com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뢰입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살이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안전성검사 : 시험번호 제 G02128호
- 상표등록번호 : 40-2001-0031242
- 구입문의 : 성모암
- 법연 스님 (010-9282-0733)
- 특별판매가격 : 125,000원(100ml × 60포)
- 본 제품판매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금에 사용됩니다.

서울 돈암동 六祖寺 현웅스님의 禪家龜鑑 강설



선원장 玄雄스님

나이 20세에 구산 선사로부터 선의 기본을 익히고 제법선원에서 정진했다. 대중생활을 뒤로하고 산중에서 6년간 홀로 지낸 뒤 공부에 변화를 경험하고 토굴 생활을 끝냈다. 20년간 서양에서 간화선을 지도하고 1년 반 전에 고국에 돌아와 육조사 선원을 개원 했다. 조계사 선원장 초청 간화선중흥법회를 시작으로 국내 백고법 회회, 성현이카데미에서 육조단정, 한국 정선치료학회에서 기선론, 서울불교대학원에서 간화선 강의, 불교방송에서 간화선 상담과 심신명, 증도가 등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선수행집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 ▶날 짜 : 2006년 2월 16일 ~ 5월 18일(양력)
- ▶시 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00 ~ 8:30
- ▶장 소 : 새로 이전한 서울 돈암동 육조사 禪房
- ▶입방대상 : 신심 있는 사부대중, 출·재가자들은 다 가능함
- ▶입방문의 : (02)953-5291 ▶입 방 비 : 15만원
- ▶입금계좌 : 우체국 <014233-01-001347 >

-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과 좌담회를 가지며 묻고 대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 정원제 이므로 조기에 입방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禪家龜鑑

이조시대에 백학도인西山 스님께서 자신의 안목으로 부처님 경전과 조사님들의 어록 <금강경, 육조단정, 벽암록, 전등록, 용산 법어, 보조선어 등> 중에서 요긴하고 간결한 글수만 뽑아 발췌 해 놓은 선원의 모음집입니다.

선방에 앉아 있다고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혼자 하게 되면 습관만 잘못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고쳐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방황과 헛된 아상만 자라나며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병만 남게 됩니다. 이런 매일수륙 고인님네들의 간절한 지참서를 의지해 그 깊은 뜻을 다시 드러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심신을 고쳐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입니다.